

“현장학습 핫플...호남 랜드마크로 키우겠다”

●문팔갑 키즈라라대표이사

지역 최대 규모 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화순 도곡에 문 열어 개관 1년만 12만명 다녀가...“올해 다양한 시즌성 이벤트 계획”

“키즈라라는 폐광으로 피폐해진 화순지역의 대체산업으로, 광부들의 피와 눈물과 땀의 소산입니다. 이에 키즈라라의 성공이 누구보다 절실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호남지역 최대 규모로 화순 도곡은천관광단지 내에 문을 연 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 키즈라라의 개관 1주년을 맞아 문팔갑(사진) 대표는 17일 그동안의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부임 초기 수많은 난제들 앞에서 좌절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 전 직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발로 뛰었다”며 “이에 광주와 전남·북지역의 많은 학

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현장학습으로 방문하는 등 개관 1년 만에 12만명이 넘는 이들이 키즈라라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키즈라라 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는 교육 문화시설이 부족한 호남지역의 현장학습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소방관을 비롯해 뉴스 앵커, 치과의사, 스튜어디스, 조종사, 은행원, 유튜버 등 30여명에 달하는 직업체험은 물론, 수도권 못지않은 시설과 접근성으로 주말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줄을 이으며 호남 최대의 교육과 놀이시설형 에듀테인먼트로 급부상하고



문 대표는 “우리 키즈라라가 화순 관광의 대

표적인 거점이 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올해 넓은 부지를 이용한 다양한 시즌성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며 “지역 업체들과의 공동 마케팅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적극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표는 “폐광으로 피폐해진 화순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조성된 우리 키즈라라가 명실상부 호남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2년차를 알차게 채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호남탄좌 능성탄광 소장, 제 2·4대 화순군의회 의원을 역임했고 제4대 화순군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다. 또 평통자문회의 화순군 협의회장,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본부장, 박주선 국회의원실 수석 비서관, 20대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대기자

이종욱 해군 3함대 하사, 길 잃은 어르신 구해



“고향에 계신 할머니 생각에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해군 제3함대사령부 법무실 소속 이종욱 하사(2·사 진)가 차도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고 홀로 서있던 어르신을 안전하게 집까지 인계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17일 해군 제3함대사령부 등에 따르면 이 하사는 지난 12일 오후 8시계 업무를 마치고 숙소로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는 어르신을 목격했다.

어르신이 곤경에 처해 있음을 직감한 이 하사는 어르신에게 달려가 안부를 묻고, 다친 곳은 없는지 살폈다. 이후 스마트폰 플래시를 이용해서 다가가오는 차량을 막고 어르신을 인도로 이동시킨 뒤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료수를 건넸다.

이 하사는 어르신과의 대화를 통해 집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인지, 경찰에 연락해 어르신이 인계될 때까지 보호했다.

덕분에 어르신은 영암경찰서 삼호지구대로 인계돼 안전하게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욱 하사는 “고향에 계신 할머니가 생각나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인으로서 당연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목표=정해선 기자



광주매일신문-북구새마을회 ‘공익캠페인’ 협약

광주매일신문과 (사)광주북구새마을회는 지난 15일 오후 광주매일신문 본사에서 사회공익 활동 및 광주매일신문의 공익캠페인 공동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북구새마을회 이문영 회장과 손경선 사무국장, 강해성·김창수 회원, 오미숙 북

구새마을문고 회장,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대표 및 간부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광주매일신문이 추진하는 공익캠페인 ‘아름다운사회 함께 만들어요’의 동행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인재영기자



송원대-KB국민은행 ‘상호 공동발전’ 맞손

송원대학교는 17일 “지난 15일 송원관 3층 이사장실에서 KB국민은행과 상호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고경주 학교법인 송원대 이사장, 정대훈 사무처장, 최수태 송원대 총장을 비롯한 내빈과 정정인 KB국민은행 진원동 지점장 등

이 참석해 협약을 체결하고 5년간 2억의 발전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경주 학교법인 송원대학교 이사장은 “송원대와 KB국민은행 간 공동발전과 지역 발전에 한마음으로 노력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대기자



市, ‘64주년 광주 3·15의거 기념식’ 개최

광주시는 지난 15일 금남로공원 광장에서 ‘제64주년 광주 3·15의거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광주 3·15의거 주역, 3·15 및 4·19단체 회원, 지역 기관단체장과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록영상 상영, 선언문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 3·15의거는 1900년 3월15일 이승만 자유당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부정선거에 맞서 시민과 학생들이 이에 항의해 일어난 시위다. 자유·민주·정의를 위해 싸웠던 우리나라 최초 민주화운동으로 4·19혁명의 기폭제가 됐다.

광주시는 4·19혁명의 기폭제가 된 3·15의거의 의미를 바르게 평가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로 개최하던 기념식을 2017년부터 광주시 주관으로 개최, 자유·민주·정의를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64년 전 광주 3·15의거가 일어났던 장소인 금남로공원 광장에서 열려 더욱 뜻 깊었다.

/박선경기자



전남경찰 기동순찰대, 도민안전·범죄 예방 ‘성과’

출범 한 달이 돼가는 전남경찰청 기동순찰대가 도민 안전 및 범죄 예방 등 다방면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17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12개 팀, 총원 98명으로 발족한 기동순찰대는 치안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배치되고, 가시적 순찰 활동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일례로 최근 개최된 진도 신비의바닷길 축제에서 순찰 중이던 기동순찰대는 “중중 치매 노인이 길을 잃고 어디로 가버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 활동을 전개, 비바람에 떨고 있던

요구조자를 무사히 구조 후 가족에게 인계했다.

이 밖에도 기동순찰대는 치안 상황을 분석해 범죄 취약지 및 교통사고 발생 지역 등에서 기초질서 위반 행위 206건을 단속했고 수배자 검거 28건을 달성했다.

박정보 전남경찰청장은 “도민들이 요청하는 범죄 취약지역에 최우선적으로 순찰활동을 실시하겠다”며 “모든 일을 정성스럽게 처리해 성실하고 따뜻한 경찰의 모습에 도민들이 감동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재영기자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건설공사 품질 관리 교육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부실공사 예방 등을 위해 최근 이틀간 22개 시·군 건설 분야 담당 공무원 220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품질 관리 교육을 했다.

교육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시·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 관리 역량 강화 및 부실 공사 예방을 위해 전문지식 습득과 관리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됐다.

이경중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은 “품질 관리 교육을 통해 도내 건설 분야 품질 관리 향상을 도모하고 신속·정확·투명한 품질 시험을 실시하는 등 부실 공사 예방 및 건설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령은 사례 위주로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시험실에서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기 등 74개 종류의 건설공사 품질 시험·검사를 한다.

특히 광주·전남 유일할 국·공립 차선도색 휘도 측정 검사기관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경중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은 “품질 관리 교육을 통해 도내 건설 분야 품질 관리 향상을 도모하고 신속·정확·투명한 품질 시험을 실시하는 등 부실 공사 예방 및 건설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월어머니집-제주4·3희생자유족부녀회 협약

(사)오월어머니집은 17일 “전남 광주남구 오월어머니집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부녀회와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 강능옥 제주4·3희생자유족부녀회장 및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여성들의 제주4·3 사건 및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네트워크 사업 및 홍보 연계를 위한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강능옥 제주4·3희생자유족부녀회장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는 신재호 선생의 말씀처럼 민주화를 위한 역사 운동을 후세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지금도 제주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하는 세력이 있다”며 “앞으로 양 기관은 역사적 사실을 폄하하는 세력과 맞서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주성학기자



빛길도, 제70회 걷기모임...황룡강 송산-평동역

빛길도, 제70회 걷기모임...황룡강 송산-평동역 (사)빛고을산들길사랑모임(이사장 박성수) 회원 80여명은 지난 16일 광주 송산유원지에서부터 장록습지, 평동역까지 황룡강 강변을 걷는 행사를 진행했다. 제70회 정기걷기모임인 이날 회원들은 따뜻한 봄바람을 맞으며 농촌농부의 봄 농경을 돕는 소중한 한나절을 보냈다.

<빛고을산들길사랑모임 제공>



장흥경찰 ‘2024 치안종합성과 보고회’

장흥경찰서는 “최근 경찰서 2층 장원마루에서 ‘상반기 치안성과 보고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신형희 장흥경찰서장, 각 부서 과장, 계·팀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난해 성과지표 분석을 통해 올해 신규 지표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 발표 등이 이뤄졌다.

신형희 장흥경찰서장은 “안전한 지역치안 유지와 성과지표가 일맥상통한 만큼, 각 지표별 추진 상황을 이변 성과보고회를 기점으로 재점검하고 군민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주민 참여 정성치안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음

▲신형임씨 별세, 송형택·형일(전 광주시의회 의원)씨 모친상=발인 19일(화) 오전 9시30분 광주 서구 국민장례문화원 21호(062-606-4000).